

현대기아차, 할부금리 낮춰 車 구입 초기비용 덜어준다

현대기아차가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할부금리를 인하한다. 차량 구입 초기비용을 낮춰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는 이달부터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선수율과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4.5% 할부금리를 제공하고 기존 대비 할부금리를 최대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할부금리 대비 최소 0.4%에서 최대 3.0%까지 금리가 낮아져 할부원금 1000만원당 최대 84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60개월 할부, 선수율 15% 미만 기준)가 있다.

차종별로는 모닝(할부원금 1100만원 기준) 약 92만원, K3(할부원금 1500만원 기준) 125만원, K5·스포티지(할부원금 2000만원 기준) 167만원, K7·쏘렌토(할부원금 2500만원 기준) 209만원, 봉고(할부원금 1570만원 기준) 131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아차는 "차량 할부 구입 시 선수율에 따른 고객들의 초기 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할부 이자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줄이고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표준형 할부구매 시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선수율과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4.5%로 고정한다.

이에 따라 표준형 할부구매(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3.4%포인트에서 최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절감 효과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대폭 줄어든 전망이다.

기아차, 선수율·할부기간 상관없이 4.5% 적용

K5·스포티지 167만원, K7·쏘렌토 209만원 혜택

현대차, 원리금 균등 차량 구입 최대 3.4%P 절감

이번달 121만원·쏘나타 151만원 이자 경감 효과

인하폭이 가장 큰 기존 ▲선수율 15% 미만 ▲할부기간 60개월 조건 할부구매의 경우, 고객이 받는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할부원금 1500만원 이용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절감액이 약 130만원에 이른다.

대상 차종은 승용, RV와 생계형 차종인 포터 및 스타렉스이며, 최대 3.4%포인트 인하분을 기준으로 할 때 차종별로 이번달(할부원금 평균 1400만원) 약 121만원, 쏘나타(할부원금 평균 1750만원) 약 151만원, 포터(할부원금 평균 1250만원) 약 108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꼭 필요한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부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수입차 시장 1위 벤츠 코리아, 지난해 매출 4조원 육박

20.5% 증가 ... 5만6343대 판매

지난해 9년 만에 수입차 시장 1위를 탈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비약적인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5위에 해당하는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3일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조78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처음으로 매출 3조원을 넘어선 2015년보다 20.5% 증가한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2.8% 오른 1143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실적은 수입차 맞수인 BMW코리아의 2조9100억원(판매량 기준 추산치)과 비교해 1조원 가까이 격차를 벌린 것이다. 벤츠는 매출이 최근 몇 년 이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입차 열풍을 타고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2조2045억원으로 처음으로 매출 2조원을 넘은 후 2015년에는 3조1415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조 단위의 기록을 경신해 오고 있다.

벤츠는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전년보다

19.9% 상승한 총 5만6343대를 판매하며 두 자릿수 성장의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수입차 업계 최초로 연 5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고, 9년 만에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벤츠는 특히 지난해 평균 판매가격이 1억5000만원대인 벤츠 S-클래스를 6783대, 7000만원대의 E-클래스를 2만2837대 등 판매했다.

벤츠는 올해 한국 시장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8600대가량 늘린 6만5000대로 잡고 있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매출이 4조원을 넘어서 2015년 매출액 5조183억원에 기록한 르노삼성자동차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국내에서 10만대 이상을 생산해 판매하는 완성차 생산 업체보다 매출이 높아진 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일"이라며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내 재투자와 인재영입, 애프터서비스(AS)망 확대 등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현대기아차 지난해 연구개발비 4조원 ... 전년보다 8% 늘어

매출액 증가율보다 2배 상회

특허 보유건수 3만건 넘어

현대기아차의 작년 연구개발비가 4조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특허 보유 건수는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2일 내놓은 현대기아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비는 3조9986억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어났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작년 매출액 증가율(3.5%)

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비율도 2.7%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늘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차 2만3744건, 기아차 6689건의 특허를 보유해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다.

현대차는 자사 특허에 대해 엔진, 변속기, 샤시, 차체 등 차량을 구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사업 보호의 역할 뿐 아니라 고기술의 경쟁사 사육을 견제하는 기술방어 역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IT) 및 전자 장치의 차량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HMI(Human Machine Interface·유저인터페이스), 자율주행, 모바일 연동 서

비스 등 선행기술의 특허 확보를 강화해 미래기술 분야를 선점하고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전기차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취득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1만7497건, 해외에서 624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국내 4474건, 해외 221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 따르면 작년에 현대차는 국내에서 3천791건의 특허를 출원해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출원 건수가 많았다.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2020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서울 모터쇼서 '로드맵' 소개

현대모비스가 오는 2020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첨단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한다.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분기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며 2019년부터 양산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 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기술 로드맵'을 소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우선 HDA2(레벨2) 고속도로주행 지원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과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현재 일부 차량에 적용된 HDA1(레벨1)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한 채 앞차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능이 핵심이다. 차선 변경이나 분기로 진입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HDA2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만 켜주면 스스로 차선 변경이나 분기로 진입, 분선 합류가 가능하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대응이 늦은 HDA1 시스템과 달리 빠르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센서도 전후방만 커버하는 HDA1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량 주위 360도 모두 체크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HDA2를 확보했으며 2019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행 자동화 레벨(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분류 기준)의 경우 레벨0은 위험 경고, 레벨1은 주행보조를 뜻한다.

현대모비스는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기준 레벨3 이상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2022년 상용화할 예정이다. HDA2보다 진화한 이 시스템은 운전자 개입 없이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경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범원 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성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장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형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정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삼겹살(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 청 미 술 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성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 풍 쌀 농 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원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학, 수축점,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환양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